2022.01.03. NO.698

JP베트남 뉴스레터

지금 베트남 기업들은… YOLA

YOLA는 2009년 설립된 영어교육전문기관 스타트업이다. 구체적으로는 베트남 학생들이 하버드, 예일, 스탠포드 등 세계 유수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IELTS, TOEFL, SAT 등 필요한 영어시험 교육과정 전반을 지원한다. 그렇다고 단순히 시험용 영어공부만을 지원하는데 그치지 않고 영어 말하기 학습 어플리케이션 ELSA와도 협업하는 등 일상에서 영어를 꾸준히 듣고 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영어가 학생들에게 또 하나의 모국어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집중한다. 프레젠테이션, 토론 등의 학습방식을 갖춘 것은 물론, 이를 위해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전문역량을 지닐 수 있도록 깐깐한 검증과 주기적인 교육도 진행된다.
"Your Online Learning Assistant"라는 YOLA의 약자에서도 알 수 있듯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동시에 제공해왔으며, 이를 위해 호치민과 하노이에 14개의 교육시설과 함께 코로나 이후에는 'YOLA Smart Learning'까지 출시하여 온라인 분야도 더욱 강화하는 등 하이브리드식 교육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를 통해 YOLA는 베트남 학부모들의 높은 교육열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베트남 영어 교과과정에 대한 간극을 메워주는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내고 있다. 전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청소년 영어 교육 프로그램, 미국 하계 캠프영어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있고, 궁극적으로 2025년까지 5만명의 우수한 영어실력을 가진 학생들을 배출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성과와 가능성을 인정받자 2016년 베트남 사모펀드 회사인 Mekong Capital로부터 490만 USD, 2019년 교육투자기금 Kaizen Private Equity로부터 1000만 USD를 각각 투자받는 등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작년에는 우리나라 롯데마트와 함께 공동으로 베트남 장학생 수여식 'Unleash the Potential'을 여는 등 교육기관으로서의 본분도 잃지 않는 모습이다.
출처: YOLA(링크), TheGURU(링크), Vietcetera(링크)

베트남 영어 사교육 시장 열풍…영어=신분상승?

베트남의 사교육 열풍은 가히 한국의 교육열에 견줄만하다. 그 중에서도 영어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은 절대적이다. 베트남 학부모들의 경우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영어 조기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유명한데, 이는 언어의 조기학습 효과가 클 뿐 아니라 베트남 경제가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외국인들과의 의사소통 기회가 급격히 늘어나는 환경과도 무관하지 않다. 때문에 영어를 잘하면 더 좋은 조건의 직장에 다닐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며 영어교육이 필수로 인식되는 것이다.
그러나 학원 수강료는 절대 저렴하지 않은데 베트남의 대표 영어 학원인 'ILA Vietnam'의 경우 5개월 74시간 교육 과정 수강료는 약 720 USD에 이른다. 이는 베트남 1인당 GDP가 2,785 USD에 달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부담스러운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강사 수준, 교육 과정, 학습 분위기 등 전반적인 측면에서 공교육 기관보다 압도적이기 때문에 많은 학부모들이 오토바이로 자녀를 실어 나르며 영어교육에 올인한다. 그 결과 미국에 유학 중인 베트남 학생은 지난해 기준 2만3,777명으로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많고, 세계에서는 6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베트남 교육시장 역시 연 7%이상씩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으며, 초·중·고등학생 수 역시 계속 증가하며 관련 시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ILA(링크), KOTRA(링크), 인사이드비나(링크)

주요기사

베트남 후추 수출액 2018년 이후 최고치 달성

베트남의 2021년 후추 수출액이 2018년 이후 최고치를 달성했다. 베트남후추협회(VPA)에 따르면 올 한 해 베트남의 수출량은 260,000톤으로, 금액으로는 9조5000억 USD에 달한다. 이는 전년 대비 9% 하락한 수출량이지만 같은 기간 40~44%까지 높은 가격상승이 견인하며 전체 수출 금액을 대폭 키웠다.

베트남의 후추는 전세계 수요량의 60%를 공급하며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 타수출국가에 비해 월등히 많은 점유율을 자랑한다. 그동안 후추 가격은 공급과잉으로 낮은 수준의 가격에 머물러 있었으나, VPA 주도의 공급량 조절 노력과 낮은 가격을 견디다 못한 후추 생산 농부들의 이탈로 최근 몇 년간 공급이 크게 줄었다. 동시에 국제기준에 맞는 품질향상과 함께 단순히 생산한 후추 그대로의 판매를 답습하기보다 여러 가공품 형태로 만들어 판매하는 비율을 늘려나간 것도 효과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 후추 수출 역시 베트남-EU FTA 발효 효과가 점차 본격적인 궤도에 진입해감에 따라 호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계속해서 건강·환경 등에 민감해지는 현실 속에서 친환경 재배방식, 글로벌GAP 등 보다 높은 기준을 충족시키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BizHub(링크)

직장인 10명 중 4명만 코로나 이전으로 원해

컨설턴트 회사 Anphabe가 최근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베트남 직장인 10명 중 6명이 코로나 이후에도 직장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설문조사는 60,200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5월부터 8월까지 진행되었으며 이 중 40%가 직장으로 돌아가는 것을, 56%가 재택근무와의 병행을, 나머지 4%가 퇴직을 고려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재택근무와의 병행을 원하는 직장인들은 이를 위해 최대 6.6%까지 월급삭감을 감수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직장인 46%만이 현재 다니는 직장에 남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최근 몇 년간의 조사결과 중 가장 낮은 수치로 향후 이직 등을 고려한 줄사퇴 행렬('The Great Resignation')이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Anphabe는 코로나로 인해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며 단절된 소속감, 동료의식 등이 이 같은 현상의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출처: Tuoitrenews(링크)

금융

SBV, 부실채권비율 8.2% 이상 가능성 경고

베트남 중앙은행(SBV)이 은행업계의 부실채권비율이 올해 말 최대 8.2%까지 급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Dao Minh Tu 중앙은행 부총재는 경제회복에 핵심적인 분야를 제외하고, 부동산·증권 등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분야에서의 현금흐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4대 국영은행 전체 담보자산 중 부동산 비율은 70~90%에 이른다. 이러한 정책적 고려에 발맞추어 부동산시장도 상당부분 회복되자 은행들은 앞다퉈 담보부동산의 매각에 나서며 부실채권 정리에 나서고 있어 재무건전성 개선에 상당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난해부터 베트남자산관리공사(VAMC)는 특수채권을 발행하는 형식으로 부실채권비율이 3% 이상인 금융기관들의 부실채권을 매입하고 있다. 위기가 현실화되기 전에 선제적 위기관리에 나선 것인데, 이를 위한 추가적인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자본금을 내년까지 10조 VND 증액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한편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많은 국가들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있는 현실에서 베트남 역시 현행 4%대로 유지되고 있는 기준금리를 부실채권비율 완화를 이유로 낮추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오미크론의 등장과 함께 완전히 코로나 위기로부터 회복되었다고 장담할 수 없는 현실에서 부실채권비율을 눈여겨보고 있는 중앙은행이 변화추이에 따라 또 어떠한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출처: VietnamBiz(링크)

다낭 시

전 지역 Region 2

2021년	최저임금(₫)
Region 1	4,420,000
Region 2	3,920,000
Region 3	3,430,000
Region 4	3,070,000

명칭: Đà Nẵng
교통: La Son-Tuy Loan 고속도로
GRDP: 43억 USD (2020)
연간성장률: 2021년 6% 목표(코로나 여파 지난해 9.77% 역성장 기록)
베트남 남중부 지방의 최대 상업 및 항구도시이자 다섯 개 직할시 중 하나로 호찌민 시, 하노이 시, 하이퐁 시 다음으로 베트남에서 큰 도시이다. 관광업이 주요 산업이었던 만큼 코로나19로 인해 큰 타격을 받았지만, 점차 관광이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관광 이외에 하이테크, IT기업 유치를 통한 첨단산업도시로 탈바꿈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5년까지 교통·물류 인프라 확충에 20억 USD를 투입하고 녹색도시로 전환을 계획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출처: KOTRA(링크)

Hoa Khanh 공단

면적: 132.6ha
입지: Tien Sa 항구 19km, Lien Chieu 항구 5km, Da Nang 국제공항 11km, Da Nang 역 9km
전기: 110/22 KV
비용:

- 임대료: 115 USD/㎡ (관리비 0.4 USD/㎡/연)
- 전기료: Peak hours 0.1 USD/kWh + Normal hours 0.05 USD/kWh + Idle hours 0.03 USD/kWh
- 물 사용료: 0.4 USD/㎥
- 폐수 처리: 0.28 USD/㎥
- 비고: 2055년까지 임대 가능/ 첨단산업의 경우 세제혜택 有(4년간 면제 이후 9년간 50% 감면)

출처: Kland(링크)

Hoa Cam 공단

면적: 261ha
입지: Da Nang 역 7km/ Da Nang 국제공항 5km/ Tien Sa 항구 8km, Da Nang City Center 8km
전기: 110/22 KV
비용:

- 임대료: 35 USD/㎡ (관리비 0.3 USD/㎡/연)
- 전기료: Peak hours 0.1 USD/kWh + Normal hours 0.05 USD/kWh + Idle hours 0.03 USD/kWh
- 물 사용료: 0.4 USD/㎥
- 폐수 처리: 0.28 USD/㎥
- 비고: 최근 투자기업 – Vietnam TOKAI, FOSTER

출처: Kland(링크)

화승그룹(Hwaseung) - 화승엔터프라이즈 편

매출공식: 아디다스=화성엔터?

그림4 투자 포인트 ③ 아디다스 회복 따른 낙수효과

자료: 아디다스, 언론 종합,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세계 최대의 신발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화성비나의 모회사 화성엔터프라이즈의 매출은 ODM 방식의 특성상 매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adidas의 매출을 그대로 따라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코로나로 인해 실용성에 방점을 둔 스포츠의류의 강세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 동계올림픽, 월드컵 등 이벤트 특수에 따른 화승엔터 매출에도 장미빛 전망이 그려지는 이유이다.

비록 베트남 코로나 봉쇄의 여파로 일부 공장이 가동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북미 지역에서 adidas의 호조세 지속 등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라 해외수출용 신발 생산비중이 95%에 달하는 베트남에서의 생산 역시 향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얼마나 빠르게 급증하는 수요를 따라갈 수 있느냐가 매출 극대화를 가늠할 지표가 될 전망이다.출처: 뉴스투데이(링크), 데일리한국(링크)

유엔기후협약 첫 가입

화성엔터가 글로벌 신발 ODM업계 최초로 유엔기후변화협약에 가입했다. 이에 따라 2019년 대비 2030년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30% 수준 감소할 계획이며, 기업의 CSR 강화와 함께 향후 Nike 등 고객사 다변화에 있어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부산일보(링크)

베트남 진출 연대기

화승그룹은 1953 년 동양고무공업㈜이라는 상호로 창립된 회사로 현재는 △종합무역 △자동차부품 △소재 △정밀화학 △신발 ODM 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사업분야를 자랑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 그 중 베트남에 대한 사랑은 각별한데, 꾸준한 사업 다각화를 통해 글로벌 환경 변화에 따른 체질 개선 노력을 지속해왔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화승비나는 2002 년 베트남 동나이 성에 진출하여 총 사업비 5100 만 달러를 들여 신발제조공장을 짓고 adidas 및 Reebok 으로부터 ODM 방식으로 주문을 받아 납품하기 시작했다. 당시 교통 인프라가 좋지 않은 축에 속하던 동나이 성으로의 진출을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았지만, 대도시 호치민과 직선거리로 50km 에 불과하다는 사실, 풍부한 노동력 등의 잠재력을 엿보았던 것이다. 또한 자동화·로봇화·무인화로 대표되는 품질과 스피드 모두를 챙기는 스마트 생산 공장 방식은 보통 주문에서부터 납기까지 평균 90 일 정도가 소요되는 시간을 절반 수준인 45 일까지로 획기적으로 단축하면서 현재 세계 최대 신발공장으로 성장했다. 또한 외투기업임에도 현지 문화와 노동자를 존중하는 자세는 지금까지 화승비나 및 모회사 화성엔터프라이즈가 꾸준한 성장을 구가할 수 있는 든든한 발판이 되어주었다. 한편 화성엔터프라이즈의 또 다른 자회사이기도 한 화성베트남네트웍스는 유통사업부문을 담당하면서 화승비나가 담당하는 신발의 개발, 생산, 마케팅, 디자인에 이어 원활한 공급망 지속에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주며 그룹사 간 시너지 효과도 톡톡히 보여주고 있다는 후문이다.

출처: Rich(링크), 화성엔터프라이즈

본 뉴스레터의 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임동현/dhlim@jplawvn.com/+82 10 6796 8845

법무법인 제이피의 뉴스레터는 베트남 경제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저희 사무소의 법률 자문 또는 공식적 견해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본 뉴스레터의 수신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jplaw@jplaws.com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프레이저 레지던스, 베트남 하노이점 오픈

베트남에서 선보이는 최초의 프레이저 레지던스로, 이로써 프레이저 호스피탈리티는 베트남 내 세 개의 브랜드를 가진 기업으로 활동영역을 넓히게 되었습니다.

프레이저 레지던스 하노이점은 여행객들의 다양한 요구에 맞춰 설계되었습니다. 침실 한 개로 구성된 아파트(61-81m2)는 혼자 온 여행객, 가족이 있는 여행객 모두에게 이상적인 공간입니다.

2021년 12월 17일, 베트남 하노이 – 프레이저스 그룹 자회사 중 하나로 비즈니스 및 레저 여행객 모두를 대상으로 모던하고 세련된 아파트를 제공하는 프레이저 레지던스 베트남 하노이점이 공식오픈을 알렸습니다. 이는 하노이에 위치한 프레이저 호스피탈리티의 두 번째 건물이자 베트남 전체에서는 세 번째입니다.

제공되는 아파트는 주요 간선도로, 핵심 정부 기관, 대사관 및 글로벌 기업들의 사무실과 가까운 하노이의 새로운 행정 및 비즈니스 중심지 Bac Tu Liem 구역 주거지역에 마련되었습니다.

건물로부터West Lake까지 차로 10분, Noi Bai 국제공항까지는 차로 23분이 소요됩니다.

각종 휴양시설을 갖춰 마치 집에서의 편안함을 자랑하는 프레이저 레지던스 하노이점은 비즈니스 출장차 방문한 직장인들에게 딱 맞는 오피스텔형 아파트에서부터 장기 체류하는 가족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세련된 형태의 원룸, 투룸, 쓰리룸 아파트까지 다양한 숙박시설을 제공합니다. 각각의 공간은 모두 섬세하게 꾸며져 최고의 스타일과 편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고급 주방가전, 최신 홈엔터테인먼트 시스템 등 최고의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뉴노멀 시대 여행에 있어 청결, 위생, 그리고 까다로운 보안 규정은 많은 투숙객들이 숙박시설을 선택하는데 있어 가장 우선시되는 사항들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무인 Ms. Tonya Khong은 "프레이저 호스피탈리티의 #FraserCaresporgramme에 따라 본사는 엄격한 거리두기 규정과 강화된 청결 시스템을 도입했고 이를 통해 방문하는 투숙객들에게 더 큰 편안함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투숙객들은 고급스러운 아파트를 제공받음은 물론, 24시간 운영하는 헬스장, 야외수영장, 찜질방 및 사우나, 어린이 놀이공간, 그리고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레스토랑을 포함해 다양한 생활편의시설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여행객들은 결국 그들이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곳에서 웰빙은 그들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경험이 됩니다. The Retreat와 같이 설계된 공간을 통해 프레이저 레지던스 하노이점에 머무르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이 곳에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바쁜 일상과 격리된 나만의 공간 속 마련된 셀프 마사지 장비를 통해 최상의 웰빙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연과 가까이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 도심에 위치한 가장 큰 공원 중 하나인 Hoa Binh 공원은 프레이저 레지던스 하노이점의 바로 길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평화로운 안식처는 야외운동 또는 소풍을 원하는 투숙객들에게 있어 최고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프레이저 레지던스 하노이점은 특히 베트남 국제선 항공편이 2022년에 재개됨에 따라 앞으로 더 많은 비즈니스 출장 여행객들을 맞이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로부터 출장차 방문한 직장인과 그 가족들이 원하는 단기에서부터 장기까지 이르는 숙박수요 역시 되살아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Ms. Khong은 "베트남은 프레이저 호스피탈리티에게 있어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이며 베트남 첫번째 프레이저 레지던스로서 손님들을 맞이할 생각에 흥분됩니다. 단순히 주말을 보내기 위해 온 국내 여행객이든지 혹은 비즈니스 출장차 온 여행객이든지 또는 이 부산한 도시를 자신의 집으로 만들기위해 찾아온 장기 여행객이든지 상관없이 프레이저 레지던스 하노이점은 당신의 그 어떠한 수요도 충족시켜줄 준비가 되어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공식오픈을 축하하기 위해, 프레이저 레지던스 하노이점은 조식이 제공되는 스페셜 패키지(1박 1,500,000 VND부터~/2022년 3월 31일까지 유효)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끝-

언론 연락처
Ms Jastina Balen
Frasers Hospitality Pte Ltd
T: 65 6415 0323
F: 65 6415 0480
E: jastina.balen@frasershospitality.com